

9월16일 월요일

호세아 13장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교만하여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2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져서 열국이 떨 정도가 되었는데(여로보암 2세 때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은 죄입니다. 본 장에서 지적하는 2가지 죄는 무엇인가요?

- 1) 1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 )
- 2) 2절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 )을 부어 만들되

\*처음부터 구원자는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았습니까(4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자 광야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그것을 무섭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신 8:11~20). 편안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속에서 사는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순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14장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본장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1-3절)와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4-9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2절),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4절)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이 메시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 ),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 )."

9월17일 화요일

요엘 1장 이렇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본장은 메뚜기의 재앙(4절)으로 땅이 황폐하여지고, 땅의 소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음(12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3절)

이에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정하여, 누구를 모았으며, 어디에 모여 무엇을 하였나요?  
"너희는 ( )을 정하고, ( )를 소집하여 ( )과 ( )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 )."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언제나 열어놓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즐거움들을 제거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차 임할 여호와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이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이어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 뒤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18-27절).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며, 이것은 단지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 )을 부르는 자는 ( )을 얻으리니."

3장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시리로다.

1장에서 메뚜기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한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는 온 우주적인 심판으로까지 확장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로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 ), 이스라엘 자손의 ( )이 되시리로다."

9월18일 수요일

아모스 1장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

아모스는 1절이 말하는 대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래로 최대의 경제적, 군사적 황금기를 누리던 시기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부와 번영을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선지자 아모스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놓여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그 이웃나라 다섯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나요?

2장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

1장에 이어 계속해서 모압,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죄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6-8절),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9-12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헌신한 나실인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실인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3장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본장에서 하나님은 7개의 질문으로 심판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3-8절)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예언과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 )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4장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본장 4-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양식을 떨어뜨리심, 비를 멈추심, 여러 가지 재앙들, 전염병, 칼, 약취 등) 그러나,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9월19일 목요일

5장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4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며, 다시 주를 찾으면 살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 ), 그리하면 ( )."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를 앞에서 벤엘이나 길갈 등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쉽게 찾아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6장 내가 아굽의 영광을 싫어하며,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성공과 번영으로 마음이 든든했던 (1절)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4-7), 이어서 이들이 의지하던 군사력까지 허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8-14). 당시 이스라엘 지도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4절) 향락을 일삼았으나(5절), 정작 무엇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나요?

7장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본장은 아모스가 본 3가지 환상(메뚜기, 불, 다림줄)을 기록합니다. 그 중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은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측량하는 도구인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림줄 옆에, 비뚤어진 건축물인 이스라엘을 아모스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서신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묵상합니다.

8장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

본장은 네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부패하기 쉬운 여름과일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임박성을 알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아닌 무엇에 대한 기갈인가요?

9월20일 금요일

9장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본장은 다섯 번째 성전 문지방에 대한 환상(1-6절) 및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기록합니다. 7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다섯가지 환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하시고 임박한 심판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 ),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오바다 1장 네가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오바다는 유다 출신으로 예루살렘 함락(주전 586년)후, 에돔의 바벨론 멸망(주전 553년)까지 예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것을 기뻐하고 이 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 ( )은 불이 될 것이며, ( )은 불꽃이 될 것이요, ( )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요나 1장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라

본장에서 요나는 최악이 가득찬 니느웨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받지만 거절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스페인)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거세지자, 요나는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12절).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본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야하는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요나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 )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 )하였더니, 내 ( )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월21일 토요일

3장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요나가 담대하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온 종일 걸으며 "사십 일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격렬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무엇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하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인해 요나의 마음이 크게 상하였습니다(1).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지만, 요나는 이 사역의 결과를 매우 싫어했고, 하나님께 성을 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영쿨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가르치십니다. 요나가 박영쿨을 아끼듯, 하나님께서 아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미가 1장 아굽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느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성전 곧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산들은 녹고 골짜기들은 갈라집니다(4).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2장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권력자와 부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재물을 모을 공리만 하면서 살아갔고, 부당한 방법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자신들을 팔았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12-13절)